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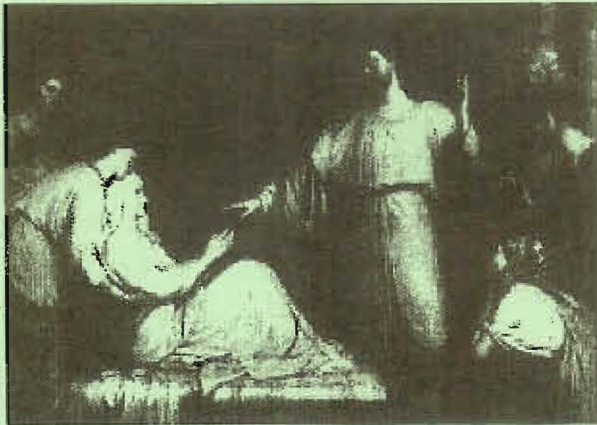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5주일
제32권 11호(나해) 2012.2.5

[묵상]



열병을 앓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하루

깜깜한 새벽, 외딴 곳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단 둘이 보내시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하여
다른 고을을 찾아 떠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을 물리치시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 속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새로운 고을을 찾아 떠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갓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을 고쳐 주시며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십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저도
은 고을 사람들을 맞이하시며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과는 기도로 얻은 에너지를
복음 선포를 위해 쏟아 붓는 것입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 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썸머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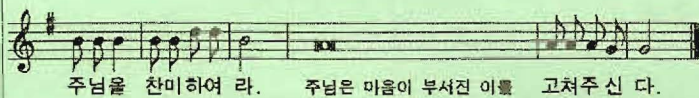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엄은섭 도로테오, 서연이 안나
특전미사	(생) 배론정교회, 백낙현 크리스토퍼 & 백연주 사라, 김동길 바오로&김재희 모니카
주 일 낮 미사	(연) 박동옥 요셉, 신태동 요아킴, 김인영 베드로, 지용애, 송기민 요셉, 이상일 요셉, 고준희 제임스, 민소예 모니카, 김만성&김봉두&강옥채, 박영춘 안토니오, 주재원 시메온, 유점이 베로니카 (생) 이태옥 아가다,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김명재 아가다, 조정옥 안드레아, 우영희 엘리사벳, 신대철 알베르토, 이정우 바오로&이폴리나 가정, 송호창 요셉&송호민, 박홍룡 요셉의 은인들, 정일모 미카엘&미카엘라 가정, 오상현 스티븐, 이경용 야고보&이윤조 글라라, 민석준 토마스&민영준 마르코, 이호재 토마스, 이명렬 라파엘&이명순 크리스티나, 나경흠 테오라, 김인성 세실리아&조영우 스테파노&임지선 레지나, 정동호 하상바오로&정병옥 올리비아&애나&린다&엘리스, 성가대, 제대회, 성교회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욥기(Job) 7,1-4.6-7

화답송 ㉠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쳐 주신다.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날달이 그 이름 지어 주시네. ㉠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9,16-19.22-23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그리스도 우리의 병고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 짊어지셨네. ㉠

복 음 마르코(Mark) 1,29-39

영성채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10	178	182
봉헌	256	264	266
성체	295 1	289	289
파견	245	230	24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성전과 성경

진리는 영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해진 것들과 말씀들에 대한 이해는” 관상과 공부를 통하여, 더 깊은 영적 체험으로부터 나온 깨달음을 통하여, 그리고 “주교직 계승을 통해 확고한 진리의 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로써” 증진됩니다. 살아 있는 전통은 교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령 안에 계시된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실상, “성전으로 교회는 성경의 온전한 정경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성전으로 성경은 한결 더 깊이 이해되고 교회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성경에 앞서 있고 또 성경을 넘어서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께 감도된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을(2티모 3,16 참조) “완전히 독특한 방식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18). 이로부터,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을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면서 그 성전과의 연관 속에서 성경에 접근하도록 분명하게 교육과 양성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길러 주는 것은 영성 생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교회 교부들이 “살”이 되신 말씀과 “책”이 되신 말씀의 유비를 발전시켰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 현장 「하느님의 말씀」은, 암브로시오 성인이 말하듯이 “아드님의 몸은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이라고 하는 고대의 전승을 받아들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인간들을 닮으셨듯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은 그 형태와 내용 면에서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단일한 실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상,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하느님께서 오로지 한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 ‘유일한 말씀’ 안에서 당신 전체를 표현하십니다(히브 1,1-3 참조).”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미 이렇게 분명히 단언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펼쳐지는 하느님의 담화는 단 하나이며, 모든 거룩한 저자들의 입에서 울리는 말씀은 단 하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성령의 활동에 힘입어 그리고 교도권의 지도 아래, 교회 는 모든 세대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모든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의 묘약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사랑한다고 수백 번 고백하는 것보다 고통스러울 때 함께 있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커다란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들어주지 못한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고통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고통의 무게가 말끔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의 장모가 무슨 병인지 복음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열병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서는 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오늘 제1독서의 욥기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 그렇게 나도 허망한 달들을 물려받고, 고통의 밤들을 나누어 받았네. 누우면 언제나 일어나려나? 생각하지만, 저녁은 깊어지고 새벽까지 뒤척거리기만 한다네. 나의 나날은... 희망도 없이 사라져 가는구려.”

삶의 고통과 좌절, 시련과 고뇌, 허무로 인해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시몬의 장모도 욥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결혼해 시댁 식구를 모시거나 관계하면서 겪는 수모, 자신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남편, 손안에 자식이건만 때때로 자신을 무시하고 대드는 자식들, 더욱이 사위 집에 얹혀살아 눈칫밥 먹는 신세 등,

그야말로 삶의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기에 온몸에 열이 나고 무기력해지는 열병(화병)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시어 아무 말씀없이 그저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오로지 따스한 사랑의 손길과 이해의 눈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그 부인 안에 쌓여 있던 온갖 슬픔과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며 여인을 괴롭히던 열도 흔적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여인은 일어나 정성스레 예수님과 그의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최고의 약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간절히 듣고 싶은 말은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라는 속삭임입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을 두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하느님의 사인(Sign)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를 마지막으로 작품에 서명을 남기지 않았습다. ‘피에타’를 완성하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은 날, 성당 문을 나서다 마음이 무너진 까닭이래는데요. 대지를 비추는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대자연의 만드신 하느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내 자신의 작은 작품에 이름을 새긴 교만함을 참회했다는군요. 문득 그 겸손한 마음씨야말로 주님께서 새겨주신 그분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뚜렷한 그분의 사인을 기억한다면 어여쁜 삶을 살아내는 일이 한결 수월해지리라 싶었습니다. 팍팍한 세상, 그분께서 자랑하시는 ‘절작’의 긍지를 잊지 않을 때, 작가의 솜씨가 가장 돋보이도록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2코린 3, 3 참조)

<부산교구 박혜린 톨스콜라스티카>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해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구역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갈유현 미카엘	김교복 레오	송현식 바오로
제2독서자	김정아 아나스타시아	서용숙 에스텔	경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주님께는 찬미로,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신하는 믿음 속에 성자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사순시기 †

◆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2월22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미사와 재의 예식에 참석합니다.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합니다.)

- 미사 :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재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가지 회수

'재의 수요일'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때 쓰이는 재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가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가지를 **2월19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7:30) 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아침미사가 2월24일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되며, 미사후 '십자가의 길' 기도가 구역순으로 진행됩니다.(스케줄 : 추후 공지)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서 배부

- 수혜대상 : 하이스쿨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신청서 : 2월4일부터 사무실에 비치
- 신청기간 : 4월1일~5월15일
- 장학금 지급 : 매년 8~10명 선정, 첫지급 8월1일 이후
- 문의 : 본당 신부님

◆ 안나회 전신자들에게 점심 무료 대접

- 일시 : 오늘 주일(5일) 낮미사 후, 친교장
- 메뉴 : 콩나물시래기 건강국밥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성경공부'(그룹반) 개설... 8일 첫공부

- '마르코 복음' 기초('텍시오 디비나'의 방법)
- 시작하는 날 : 수요일- 2월8일 오전 10시
금요일- 2월10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사무실 앞 강의실
- 동반자(지도) : 본당 수녀님
- * 오늘 주일(5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골프회 2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2월18일(토) 오전 9시
- 장소 : Skylink 골프코스(통비치)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2011년도분 세금보고 세미나(사회복지분과 주최)

- 일시 : 2월19일(주일) 낮미사와 친교점심후, 강당
- 강사 : CPA 채양석 막시밀리언 콜베
- 세미나 내용 : 공제항목, 크레딧,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과 세대상금액, Capital Gain or Loss, 해외금융자산보고 등
- 문의 : 차인수 안드레아 사회복지분과장 ☎(310)256-6001

◆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 성지순례 기념사진/비디오

- 오늘 주일(5일)부터 사무실에 비치
- 사진 CD 2장(1500여장 내제) \$5
- 비디오 DVD 1장(1시간20분 길이) \$5
- 문의 : 홍보분과 안재만 다니엘 ☎(310)972-0239
이민상 사도요한 ☎(213)709-4400

◆ 주님봉헌축일에 제대로 봉헌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넉넉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2월5일(주일) : 안나회(콩나물시래기국밥 \$무료)
주일학교(5학년 치킨볶음밥)
- 2월12일(주일) : 토런스 동2반(소고기무우국밥 \$3)
주일학교(4학년 떡볶이)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정엽 김충섭 박상준 윤영훈 이근태 이용무 차정에 한길선례	강운철 김정희(올리아) 김형순 박종민 유희연 이병우 이현주 최태훈 한금순	강인모 김정희(안젤라) 김호순 박종열 윤성순 이봉덕 장영진 한금순	금동군 김정희(안젤라) 노찬술 박진수 윤철 이상규 전동훈 한창주	김 욱 민경근 엄지선 윤화경 이석진 정훈모 한혜숙	김 은 김주량 박기돈 오수인 이경태 이용식 조영희 황인종
합계 : \$4,560						
미사헌금 : \$3,110						

성전헌금	강순복 김정희(안젤라) 민경근 유희연 이석진 조영희 한길선례	강운철 김정희(안젤라) 박기돈 윤화경 이용식 최태훈	강인모 김충섭 박종열 이경태 이용무 한금순	김 욱 김형순 엄지선 이근태 이현주 한창주	김정엽 김호순 오수인 이병우 전동훈 한혜숙	김주량 노찬술 윤영훈 이상규 정훈모 황인종
합계 : \$2,350						
감사헌금 : 정광미 달력/주보 광고후원 : \$700(감사합니다.)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시작

- 기간 : 2월1일(수)~3월31일(토)까지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 중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9일(금)~3월10일(토), 장소 : 백삼위 본당
- 준비물 : 성경, 목주, 미사헌금, 슬리펄백, 재킷, 주일학교 티셔츠, 세면도구
-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 참가비 : \$60(3월1일 이후 신청은 \$80)
- 준비물 : 성경, 목주, 슬리펄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 교무주임 ☎(424)903-6637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30명(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접수중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면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경 올리아 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 주님탄생예고축일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세미나

- 일시 : 2월16일(목)~18일(금) 오후 7시~10시
- 장소 : LA 성바실 한인천주교회 본당지하
- 대상 : 전신자 * 준비물 : 목주, 성가집
- 강사 : 김명숙 히야친타 수녀(티없으신 마리아성심 수녀회)
- 문의 : 주배석 비오 ☎(818)571-8438 (파티마의 푸른군대)

◆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모임

- 일시 : 2월18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 성 골롬반 선교센터(2600 N. Vermont Av. LA)
- 대상 : 선교사제 성소에 관심있는 남성(18세~35세)
- 문의 : (323)734-4946

◆ 성골롬반 청소년선교회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시 : 4월21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로열비스타 골프코스(20055 E. Colima Rd. Walnut)
- 참가비 : \$100 * 문의 : 최용훈 신부 ☎(323)388-7737

노공동체 2월 반모임 안내

노공동체 부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차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강순복 요세피나 850-6388 2/4(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530-7702 2/11(토) 오후 6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대우 비오 378-8763 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크리스 619-7763 2/12(주일) 사하라 온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진영선 크리스티나 781-0856 2/14(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이명자 마가렛 320-0855 2/17(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34-6923 2/10(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2/18(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2/18(토) 오후 6시30분 성당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최현찬 안드레아 938-0848 2/11(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2/10(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이건영 프란치스코 377-5632 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2/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2/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다음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 하면 산다.

최근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의 하나는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저를 아끼는 따뜻한 위로의 말임을 알고 있지만, 요즘엔 제 주치의인 성모병원의 강진형 교수가 ‘무리하지 마세요.’ 하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누워서 환자 노릇만 하란 말이오. 의사 말대로 하면 다 죽어요. 의사의 말 반대로 하면 살아난대두.”
저도 처음에는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폭 쉬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누워서 잠만 자고, 책보고, 꿈쩍 않고 텔레비전만 보노라니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져서 그야말로 완전한 환자가 된 비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끝까지 걸어보니 오십 보. 한바퀴 돌아오면 정확히 백 보였습니다.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저는 시간만 나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백 바퀴를 돌아 만 보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도저히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운전대도 잡았고,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거리를 늘려 한남동에 있는 작업실에도 나갔습니다. 내키면 청계산에 가서 쉬엄쉬엄 약수터까지 걸어가고 멀리 여행도 떠나는 등 가능하면 제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일찍이 당나라의 선승 동산(洞山)에게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찾아오면 이를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동산이 대답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입니까.”

그러자 동산이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추울 때는 그대를 더 춥게 하고, 더울 땐 그대를 더 덥게 하는 곳이다.”

우리는 추우면 본능적으로 더운 곳으로 피하려 합니다. 더운 곳으로 피하면 추위는 일시 가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통이나 근심이 있을 때 술을 마시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피하고 있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

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추위를 피하려면 애써 더 추운 곳으로 찾아가라는 동산 스님의 말은 고통이 오면 더 그 고통을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도가서(道家書)인 「열자(列子)」에는 전설적인 신궁 비위(飛衛)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 기창(紀昌)이 찾아와 활쏘기를 배우려 하자 비위는 말합니다.

“활쏘기보다 먼저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끝까지 보는 공부부터 하게.”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셨습니다.

“살려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면 곧 살 것이다. (生即必死 死即必生)”

주님도 이렇게 못 박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마태 10,39)”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루카 2,10)”라고 찬양하였듯이 우리가 겪는 이 들판에서 밤을 새우는 추위는, 이 병은, 이 슬픔과 고통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듣기 위한 특별한 은총이니, 지금 여기에서 무리를 해서라도 일어섭시다. 무리를 해서라도 길 수 있으면 기고, 걸을 수 있으면 걷고, 달릴 수 있으면 뛰어서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구유 위에 누운 아기 예수를 보라 잡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기쁨에 젖어 하늘의 군대와 천사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 배드로/작가

<서울대교구 주보 ‘말씀의 이삭’>

